

생명의 원천 '물' 이야기

ACC 기획전 '아쿠아 천국' 개막
9월 12일까지 문화창조원 3·4관
수생태계와 인간의 대안적 관계
5개국 작가 11명 참여 14점 선배

제주 천지연폭포를 빛과 사운드로 만나는 첫 공간을 통과하면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슬루해 풍경이 펼쳐진다. 건너편 벽면에는 목탄으로 그려낸 인도네시아 물의 문화 이야기가 보인다. 증강현실로 보는 홍수 속 러브스토리, 그리고 분자운동을 통해 보여주는 물의 순환까지 현대 시각예술을 통해 조명한 물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시작했다.

9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 3·4관에서 개막된 ACC 기획전시 '아쿠아 천국(Aqua Paradiso)'은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원천인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응축한 현대미술로 풀어낸 전시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출신 작가 11명이 참여해 현대 미술 작품 14점을 선보인다.

인간이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살아갈 때 등장한 물,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함께한 물,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며 서사를 창조하는 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조절자로서 물 등 다양하고 풍부한 물의 서사를 담은 작품들이다. 전통적으로 광주는 '화' 기운이 많고 '수' 기운이 모자란 곳으로 '수' 기운 보충을 위해 기획된 작품들이라는 ACC측의 전시 설명도 눈에 띈다.

전시장에 들어서 처음 만나는 작품은 리경 작가의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다. 천지연 폭포를 애니메이션 등 여러가지 디지털 기술과 사운드로 재해석했다. 낙하하는 폭포물줄기와 사운드를 스치면 물로 정화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작가 이 이란의 사진 연작 '슬루 이야기'는 400년간 술탄 슬루쿠이 지배했던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작가의 기억을 투영해 상상력을 자극한다. 말레이시아 여성과 필리핀 남성을 한 앵글에 담아 두 나라의 근본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도 상징적이다.

인도네시아 작가 마리안토의 벽화 작품 '피르파 페르위타사리(생명의 신성한 물)'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작가가 광주에서 14일간 목탄으로 그린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물의 문화를 보여준다. 자연의 재료인 목탄을 사용하면서 물은 수탈하는 대상이 아닌 인류 생



마리안토 '피르파 페르위타사리'



이 이란 '슬루 이야기: 갈라워의 기린'



아드리앵 M & 클레어 B '아쿠아 알타-거울을 건너서'

명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랑스 작가 아드리앵 엠(M)과 클레어 비(B)의 '아쿠아 알타-거울을 넘어서'는 '아쿠아 알타(높은 물)' 즉, 베니스 대홍수를 소재로 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9년 베니스 대홍수 장면이 입체 책에 나타나고 이것을 매개로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각자의 핸드폰으로 체험 가능하다.

영산강물의 근원인 광주 무등산 생태와 경양 방죽 인공호수의 역사를 탐구한 권혜원의 '액체비전',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멜랑콜리아'를 차용해 치유하는 물을 형상화한 김태은의 '구원 증발'도 만날 수 있다.

폐집어등을 설치작품으로 승화해 물의 순환과 올바른 사용을 시각화한 부지현의 '웨어 이즈 잇 고잉(Where is it going)', 대만의 대홍

수 신화와 전설을 매체 예술로 표현한 리우 위의 '이야기가 넘쳐 홍수가 될 때', 융 심리학의 무의식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물의 속성을 상징화한 바키(Vakki)의 동작 예술 작품 '무의식의 원형' 등은 물에 관한 새로운 시각 예술의 확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해양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산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치작업도 마련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코아웃은 '제주산호뜨개' 작품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의 절박함을 관람객과 공유한다. 전시 기간 중 일반인 대상으로 산호뜨개 체험 공동연수를 연다. 여기서 제작된 산호뜨개 결과물은 전시장에 설치돼 작품의 일부가 된다.

'아쿠아 천국' 전시는 9월 12일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다. /최진화 기자

공동 예술의 거리 'VIVA 예술로 축제' 열린다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2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인 VIVA 예술로 축제가 11일 막을 올린다.

'VIVA! 예술로, 그대를 위한 7개의 예술 선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11일 오후 3시에 열린 개막식은 이진우·이우빈의 '타이거 댄스 프로젝트'로 시작된다. 이어 행위 미술가 이혁발과 이희란, 이정훈의 퍼포먼스아트, 현대무용단 '마고'와 이수산바이올리니스트의 콜라보 공연 등도 이어진다.

오는 10월 30일까지 20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더불어 유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비바 예술 공연'으로, 퍼포먼스아트, 재즈 공연, 현대 무용, 협업 공연 등이 예술의 거리 상가 일대에서 총 14차례 진행된다.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공연의 장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이색적인 공연들로 구성됐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비바 뉴아트'는 NFT와 메타버스를 접목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창작 품들을 선보인다. 시민들은 온라인 마켓에 등록된 NFT 작품을 감상함과 동시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개인 소장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바아트스페이스'는 축제 기간 내 운영되는 상설 전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술작품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형 콘텐츠 기획물이다.

'예술로 소통'은 예술로 상인들이 시민들을 직접 인솔해 예술의 거리를 거니는 가이드투어 프로그램이다.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의 거리 특화 상품을 판매하는 로드마켓 등 소박한 예술 자원이 살아 숨 쉬는 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영되는 '비바아트 TV'는 2022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의 모든 과정과 에피소드를 한데 담아 전달한다. 이와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 온앤오프(Live Commerce On and Off)'를 통해 신진 청년작가 알리기에도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미디어창작공연 AI 생태'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아트를 베이스로 실험 사운드와 현대무용이 융합된 창작공연이다.

이번 축제를 총괄하는 김광철 감독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놀이·조작 체험 전시품 공개

관람객 맞춤형 콘텐츠 발굴

국립광주과학관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놀이·조작형 체험 전시품 2점을 새롭게 공개했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빛과 예술의 미디어 월'은 5.4m의 대형 LED 영상 스크린과 모션인식 센서로 구성, 관람객들의 동작을 인식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전시품이다.

관람객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를 터치해 제거하는 게임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배움과 동시에 뉴리호 모형 퍼즐을 완성시킨 후 발사 및 궤도에 안착시키는 미션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발달도 체험할 수 있다.

2층에 설치된 '유틸리티&키네틱 아트'는 미술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간단한 일을 복잡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골드버그 장치를 콘셉트로 다양한 크기의 기어와 롤링볼, 엘리베이터, 핸들로 구성된 작동 체험 전시품이다.

이 전시품은 관람객이 핸들을 돌려 일을 한 만큼 지면에 있던 공이 올라가면서 위치에너지



국립광주과학관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빛과 예술의 미디어 월'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를 얻게 되고, 레일을 따라 내려오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숨겨진 역학적 에너지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품을 개발한 박은미 연구원은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놀이 중심의 체험 전시품을 제작했다"며 "앞으로 관람객 맞춤형 전시콘텐츠 개발을 통해 늘 새로운 모습의 과학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